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자
(창 9:13)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주님의교회 WEEKLY PAPER

재창간호 통권 제 1 호 / 발행일 : 2003년 4월 20일

부활주일 찬양 Festival!

청년부는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아 4부예배에 특별순서를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축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0여명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 중창의 찬양, 천지창조로부터 타락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음악과 마임을 통해 표현한 위십 드라마, 그리고 빠르고 경쾌한 찬양에 맞춰 10여명이 춤으로 표현하는 위십댄스이다.

이 순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4부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자 한다. 부활하신 주님께는 영광을, 준비한 이들에게

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 될 것 기대해본다. / 전수경 기자(편집부)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뜨거운 배움의 열기로 가득...

지난 3월 4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성원 속에 시작되었다.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30~9:30에 3층 소년부실에서 있으며, 4월 15일을 제외하고 총 8회로 진행되고 있다.

3월 4일은 김현명 전도사가 '교회교육의 진단과 새방향성 모색'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교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3월 11일은 소군호 간사의 인도로 '공동체훈련'의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치 못한 분들을 위해 4월 6일 교사기도회에 한 번 더 순서를 가졌다.

3월 18일의 '풍선아트와 이벤트'는 많은 학부모들이 동참하여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3월 25일, 김중은 교수의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간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구약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앞으로 4월 22일, 29일 등 남은 시간에도 더없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을 바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 있을 담임목사의 강의와 특별한 무대를 기대해본다.

/ 최재경 기자(5교구)

매월 셋째주일은 나눔의 물품을!

어두운 사회의
| 곳곳을 비추기를

사회선교위원회 복지선교부는 '나눔의 물품'을 모아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믿음과 행함 속에 어두운 사회의 곳곳을 비추고 있다.

매월 셋째주일 1층 로비에서 수거하여 모인 물품은 부원들이 정리하여 복한 어린이와 아프리카 오지의 어린이에게는 옷과 인형과 장난감을, 조선족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발과 옷과 컴퓨터를, 복지선교단체(장애인시설/노인복지시설/노숙자시설)에는 기타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있다.

"나눔의 물품을 내어 주실 때,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손질 좀 해서 사용가능한 것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장이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 이종석 기자

함즐함울이 주간지로 바뀝니다.

함즐함울이 앞으로는 매주 발간될 예정이다. 그간 격월 발간의 함즐함울로는 교회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신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의사교환의 통로가 되기에는 부적절하여, 행사후기나 문예지로서의 기능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회신문으로서 신앙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 각 기관 및 성도간의 의사교환의 통로가 되도록 매주 발간으로 개편하였다.

앞으로 기자들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간지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에 교우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한다.

/ 함즐함울 편집부

▷함즐함울 기자임명식

교회, 교우들의 따끈따끈한 소식 알림에 앞장서...

3월 23일(주일) 오후1시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는 '함즐함울 기자임명식'이 있었다.

주간지로 개편되면서 교회신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회 각 기관의 소식 및 교회 구

석구석의 교우들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취재할 기자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교회 각 기관의 임원 및 추천을 받아 함즐함울 기자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 날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만든 신문을 교우들이 집에서 찬찬히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다. 교회신문 함즐함울의 기자명단 및 편집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교회기관 기자

신연식(여선교연합회) 이종석(안수집사회)
이동순(권사회) 김학원(호산나찬양대)
최성진(시온찬양대) 김정래(살롬찬양대)
강진식(브니엘찬양대)

▶교회학교 기자

김향순(영아부) 이은정(유아1부)
이은경(유아2부) 탁희정(유치부)
이윤진(소년부) 지호선(중등부)
박혜경(고등부)

▶교구 기자

오종세(2교구) 박기운(4교구)
최재경(5교구) 홍인숙(6교구)
백미경(7교구) 임기택(8교구)

▶편집부 기자

정해춘(편집부장) 김용직(편집부)
이기숙(편집부) 조경옥(편집부)

엄문섭(편집부) 김영미B(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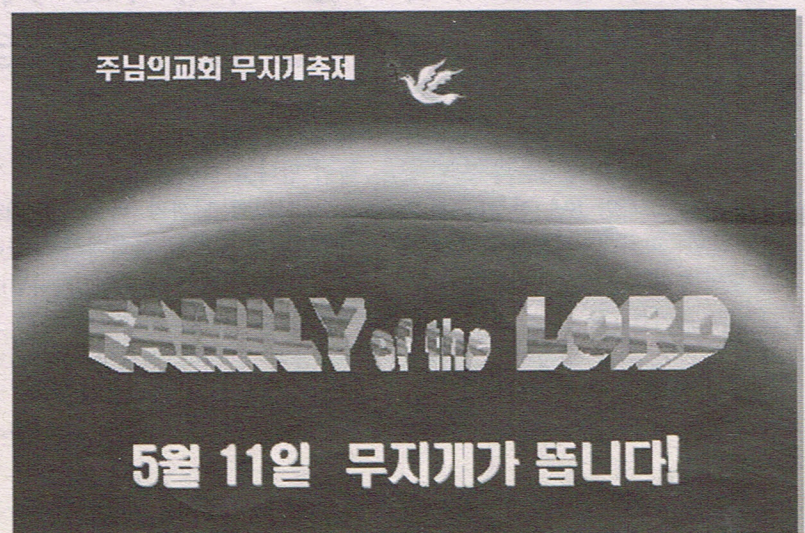
허진(편집부) 현순자(편집부)

전수경(편집부) 김용남(편집부)

최창섭 장로(문화홍보위원장)

이창현 목사

/ 함즐함울 편집부



▷찬양대 연합수련회

내년에도 '올해' 같이...

찬양대 연합수련회가 2월 28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양수리수양관에 개최되었다. 찬양대별로 자체 수련회를 가진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음악위원회 신년모임에서 찬양대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2월 9일 1차실행위원회 모임에서 수련회 윤곽을 잡고 업무 분담자를 정해 16일 2차모임을 거친 뒤 26일 최종점검모임을 가졌다.

금요일 오후 6시, 교회에서 버스 3대를 나누어 타고 수양관으로 향했으며, 승용차 편으로 도착한 대원들도 있었다.

저녁식사 후 벨엘성전에서 삼삼오오 자리를 잡아 찬양과 기도로 수련회를 시작하였다. 저녁에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담임목사의 말씀이 있었고, 이후 게임을 통한 대원들의 단결과 친목을 다지고 자정을 넘어서 김성관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였다.

이튿날 오전 김경빈 집사가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강의를 하였다. 이후 제2가나안 농군학교 부설 복민교육원의 홍명희 교수의 '성령과 기질'이라는 강의가 진행됐다. 다혈, 담즙, 우울, 점액의 4대 기질과 12가지 개인성격이 소개되었고, 대원들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12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의했다.

각 집단마다 성격별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사례와 지향해야 할 점을 배웠다.

3월 2일(주일), 수련회에 대한 설문조사 후 강진식 집사 댁에서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는 대원 194명과 가족 11명, 총 205명이 참석하였고 대부분(86%)의 의견이 내년도 금년같이 개최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었다.

한 방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서 잠자리가 불편하였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연합수련회로 찬양대 모두 하나라는

인식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찬양대원으로서 예배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 김학원 기자(음악위원회 연합총무)

▷중등부 겨울수련회

의미 깊은 '성막체험수련회'

중등부는 2월 26일~28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새문안교회 수련장에서 90명의 학생들과 25명의 교사, 부모들이 참여하여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주제는 '말씀, 기도, 찬양, 교제'였다.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성막체험 시간으로 학생들이 바깥 뜰, 안뜰, 성소, 지성소 순으로 입성하였으며, 지성소에 도착한 학생 개개인에게 기도로 축복하였고 축하파티로 마쳤다. 성막체험이 진행되는 다섯 시간 동안, 권사, 학부모, 교사들은 중보

기도를 하였으며, 학생들의 눈물의 회개가 이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장기차량 시간에는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과 삼성프로 농구단의 푸짐한 선물지원으로 한층 흥겨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수련회를 마치고 출소하는 학생들의 얼굴이 처음 입소할 당시보다 담대해 보였고 성숙된 학생들의 표정에서 밝은 미래를 보는 듯 뿌듯한 한마디였다"고 평하였다. 다가올 여름수련회를 기대해본다.

/ 지호선 기자(중등부)

성지순례시리즈 1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

3년 전 여름, 이스라엘 한 해변에서 꿈을 꾸었다. 시내산과 광야, 사해와 여리고, 갈릴리와 가버나움, 므깃도와 갈멜산 등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전날 밤이었다. 짐을 호텔에 푼 다음 밤바다를 보러나간 나는 백사장 고운 모래에 조용히 몸을 누였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지중해의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멀리 작

게 떠 있는 배에서 불빛이 스며 나왔다. 그 불빛이 정답게 느껴져 몸을 일으켜 앉아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바다를 지나면 어디로 갈까...?' 나는 사도 바울의 꿈을 꾸고 있었다.

작년 여름, 서부 유럽을 돌면서 느꼈던 갈증이 이번 1월에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이어졌다. 3주간 여행을 하는 동안 작은 지식들과 목상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3

교회용어정리시리즈 1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과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만일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의당 다음과 같이 고쳐서 말해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으로서 2인칭이다. 우리 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는 없고, 극존대어로 쓰이는 경우는 3인칭일 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2인칭에 해당되므로 '당신'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 용어 연구위원회 제공자료)

/ 함줄함울 편집부

▷레위파티 이야기

평소에 종교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그들도 저의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제겐 20년 가까이 모이는 중고등, 대학을 나온 동창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8년 전부터 제가 경영하던 회사가 잘못되고나서는 그 모임에 발걸을 끊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동기들 중 제일 잘 나가던 제가 꼬리가 뒹을 인정하기 싫음과 또한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 그들 앞에 뿔뿔이 나서마하는 오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의 안간힘 끝에 주님 앞에 무릎꿇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저를 죽이고나니 그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 모임의 날짜가 바로 3월 9일(주일)인데 모두들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친구들은 오래히 일요일 산행이나 야유회를 다녀와 식사를 했기에 저는 교회가 끝나고나서 식사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은 질문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어

떻게 살았냐? 애들은? 와이프는? 등등부터 우리는 다 늙었는데 왜 너만 흰머리도 없고 하나도 안늙어 보이니까... 한 마디로 쫄딱 망해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네가 어떻게 가족도 잘 지키고 애들도 잘되고 얼굴도 그렇게 천태평처럼 보일 수가 있느냐는 투로 제겐 들렸습니다.

제가 달리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뭐 있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대꾸중에는 '주님'이 때로는 주어,

때로는 목적어가 되는 대답을 할 수 밖에요.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에 다시 찾은 주님께서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셨고, 또 지금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채로 너희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셨노라고... 그건 여기 있는 내가 그 증인이요, 증거아니냐고...'

평소에 종교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그들도 저의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라면 난 여기 죽어도 못 나왔다."

그 날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레위파티를 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 김용남 성도

▷안수집사회 첫모임

교회의 '허리' 역할

봉사의 첫단추는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안수집사회(회장 하승락)는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제1집회실에서 부부동반 새해 첫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에 담임목사는 설교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여건을 이어가자"는 희망차고 가슴벅차 오르는 비전에 대한 말씀과 함께 봉사와 헌신의 가치있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2부는 정월의 덕담과 그 동안 쌓였던 정담을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했고, 3부는 웃놀이를 통하여 아주 흥겨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1등상은 몇 번 탈락 위기를 넘긴 손달진 회원이 30평형 공기청정기를 차지했으며, 2등에는 김동일 회원으로 발안마기를, 3등은 유은숙 회원으로 홍삼을 수상했다.

현재 안수집사회는 1996년에 시작

하여 재적 총 58명이며, 이 중 4명이 이민 또는 개인사정으로 참여치 못하여 현재 54명이다.

안수집사로 피택되어 안수받은 이는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고,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회원 경조사, 선교 및 필요한 부분에 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는 담임목사 청빙을 비롯한 교회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안수집사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회원이 참여하는 친교와 경건생활 프로그램 및 교회의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허리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봉사의 첫단추는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가는데 앞장서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집사 회장의 2003년의 다짐이다. / 이종석 기자(안수집사회)

▷권사회 월례회

세족식? 발마사지!

3월 18일(화) 제2집회실에서 권사회가 3월 월례회로 모였다. 이 날 김성관 목사의 예배인도 후에 이어 김양자 권사의 지도로 발마사지(정맥마사지) 실습이 있었는데 이 실습을 통해 발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으

며, 또한 유월절 전 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이동순 기자(권사회)

▷제1남선교회 임시총회

'은빛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제1남선교회는 지난 2월 9일 제3집회실에서 2003년도 임시총회를 가졌다.

2003년도 회장으로 임명된 엄주청 안수집사의 인사와 충무 신정웅 집사의 사회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의 사역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2부 순서로는 문동학 담임목사의 특강으로 채워졌다. 담임목사는 제1남선교회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주된 특강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인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버 합창단 운영', '소그룹별 운동

집단 모임', '실버대학 개설', '실버수련장' 등과 같은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소속감이 줄어드는 60대 회원이 많은 제1남선교회는 자칫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되어 노인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점을 역설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팎의 균형잡히고 점진적인 노인사업에 힘을 쓸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1974년경 학생 신분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대학 설립 멤버이기도 했으며, 당시에 노인들에 대한 연구에 전력을 쏟으신 담임목사의 이론과 체험에 관한 말씀은 향후 남선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전수경 기자(편집부)

'호렙산악등반대' 발족



얼어 붙었던 땅에 새싹이 파릇하게 소생하는 봄의 문턱인 3월 15일!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모일지 불안한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집합지인 청계산 입구(옛골)에 오후 1시경 도착했다. 이윽고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한 인원이 이상훈 목사와 부부 세 쌍을 포함해서 18명, 드디어 정상 이수봉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토요일 오후, 그 곳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었고 날씨도 아주 좋았다. 휴식 때 약수터에서 마시는 물맛은 마치 꿀물과도 같았다. 올라갈수록 길은 눈이 녹아 질었지만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가파른 길을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작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하산 중 넓은 장소를 찾아 그 곳에서 산상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의 예배도 좋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 가까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는다.

서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 나의 길'이란 제목의 이상훈 목사의 말씀을 듣고 즉석에서 호렙산악회란 이름도 정하여 회장에는 임현표 안수집사를 선임했다.

호렙산악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많은 교우들이 동참해 주리라 믿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우간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호렙산악회의 모임은 매달 세 번째 토요일 오후 1시 반이며, 동참하길 원하는 분은 호렙산악회 총무 조선연 집사(017-747-1233)에게 신청하면 된다. / 전수경 기자(편집부)

▷드라마부

3년이란 시간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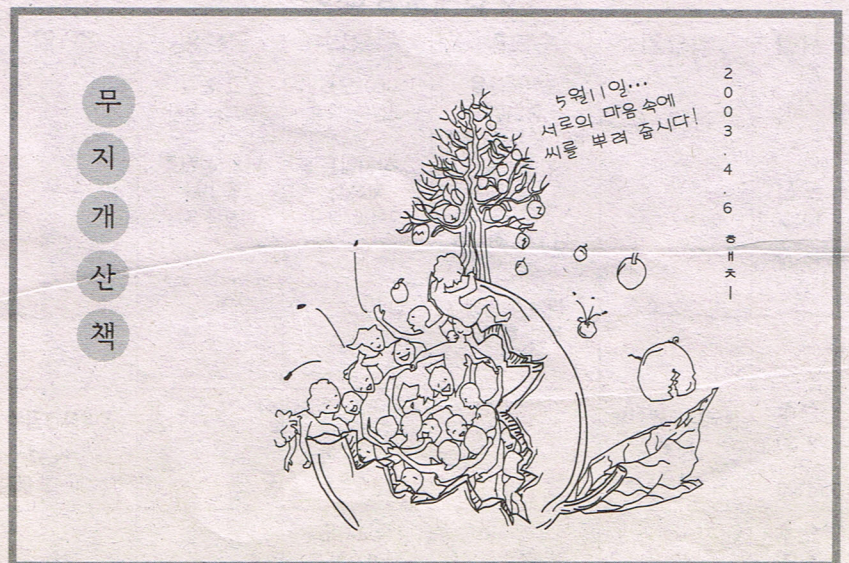
드라마부는 2001년 창단되어 현재 13명의 아마추어 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작품 선정, 무대장치, 조명, 의상 등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1년 '어느 버스기사의 이야기'로 주님의교회와 강남시립병원, 구리토평지구에 있는 은혜로교회 창립예배 등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고, 2002년에는 주님의교회 중강당 개관식날 '악인녀와 악인남의 삶과 죽음'이란 성극을 준비하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2003년 1월에 신천에 있는 광명교회와 2월 9일에 강

원도 주문진장로교회에서 각각 은혜로운 선교공연을 가졌다.

부장 이상경 권사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며 주님의교회 드라마부도 더욱 활동적인 부서로서 주님의 향기를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전염시킬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부장 이상경 권사(011-243-9202)에게 연락하면 된다.

/ 정해춘 기자(편집부)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자
(창 9:13)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주님의교회 WEEKLY PAPER

재창간호 통권 제 1 호 / 발행일 : 2003년 4월 20일

부활주일 찬양 Festival!

청년부는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아 4부예배에 특별순서를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축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0여명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 중창의 찬양, 천지창조로부터 타락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음악과 마임을 통해 표현한 위십 드라마, 그리고 빠르고 경쾌한 찬양에 맞춰 10여명이 춤으로 표현하는 위십댄스이다.

이 순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4부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자 한다. 부활하신 주님께는 영광을, 준비한 이들에게

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 될 것 기대해본다. / 전수경 기자(편집부)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뜨거운 배움의 열기로 가득...

지난 3월 4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성원 속에 시작되었다.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30~9:30에 3층 소년부실에서 있으며, 4월 15일을 제외하고 총 8회로 진행되고 있다.

3월 4일은 김현명 전도사가 '교회교육의 진단과 새방향성 모색'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교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3월 11일은 소군호 간사의 인도로 '공동체훈련'의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치 못한 분들을 위해 4월 6일 교사기도회에 한 번 더 순서를 가졌다.

3월 18일의 '풍선아트와 이벤트'는 많은 학부모들이 동참하여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3월 25일, 김중은 교수의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간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구약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앞으로 4월 22일, 29일 등 남은 시간에도 더없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을 바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 있을 담임목사의 강의와 특별한 무대를 기대해본다.

/ 최재경.기자(5교구)

매월 셋째주일은 나눔의 물품을!

어두운 사회의
| 곳곳을 비추기를

사회선교위원회 복지선교부는 '나눔의 물품'을 모아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믿음과 행함 속에 어두운 사회의 곳곳을 비추고 있다.

매월 셋째주일 1층 로비에서 수거하여 모인 물품은 부원들이 정리하여 복한 어린이와 아프리카 오지의 어린이에게는 옷과 인형과 장난감을, 조선족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발과 옷과 컴퓨터를, 복지선교단체(장애인시설/노인복지시설/노숙자시설)에는 기타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있다.

"나눔의 물품을 내어 주실 때,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손질 좀 해서 사용가능한 것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장이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 이종석 기자

함즐함울이 주간지로 바뀝니다.

함즐함울이 앞으로는 매주 발간될 예정이다. 그간 격월 발간의 함즐함울로는 교회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신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의사교환의 통로가 되기에는 부적절하여, 행사후기나 문예지로서의 기능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회신문으로서 신앙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 각 기관 및 성도간의 의사교환의 통로가 되도록 매주 발간으로 개편하였다.

앞으로 기자들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간지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에 교우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한다.

/ 함즐함울 편집부

▷함즐함울 기자임명식

교회, 교우들의 따끈따끈한 소식 알림에 앞장서...

3월 23일(주일) 오후1시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는 '함즐함울 기자임명식'이 있었다.

주간지로 개편되면서 교회신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회 각 기관의 소식 및 교회 구

석구석의 교우들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취재할 기자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교회 각 기관의 임원 및 추천을 받아 함즐함울 기자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 날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만든 신문을 교우들이 집에서 찬찬히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다. 교회신문 함즐함울의 기자명단 및 편집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교회기관 기자

신연식(여선교연합회) 이종석(안수집사회)
이동순(권사회) 김학원(호산나찬양대)
최성진(시온찬양대) 김정래(살롬찬양대)
강진식(브니엘찬양대)

▶교회학교 기자

김향순(영아부) 이은정(유아1부)
이은경(유아2부) 탁희정(유치부)
이윤진(소년부) 지호선(중등부)
박혜경(고등부)

▶교구 기자

오종세(2교구) 박기운(4교구)
최재경(5교구) 홍인숙(6교구)
백미경(7교구) 임기택(8교구)

▶편집부 기자

정해춘(편집부장) 김용직(편집부)
이기숙(편집부) 조경옥(편집부)

엄문섭(편집부) 김영미B(편집부)

허진(편집부) 현순자(편집부)

전수경(편집부) 김용남(편집부)

최창섭 장로(문화홍보위원장)

이창현 목사

/ 함즐함울 편집부

주님의교회 무지개축제



FAMILY of the LORD

5월 11일 무지개가 뜹니다

▷찬양대 연합수련회

내년에도 '올해' 같이...

찬양대 연합수련회가 2월 28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양수리수양관에 개최되었다. 찬양대별로 자체 수련회를 가진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음악위원회 신년모임에서 찬양대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2월 9일 1차실행위원회 모임에서 수련회 윤곽을 잡고 업무 분담자를 정해 16일 2차모임을 거친 뒤 26일 최종점검모임을 가졌다.

금요일 오후 6시, 교회에서 버스 3대를 나누어 타고 수양관으로 향했으며, 승용차 편으로 도착한 대원들도 있었다.

저녁식사 후 벨엘성전에서 삼삼오오 자리를 잡아 찬양과 기도로 수련회를 시작하였다. 저녁에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담임목사의 말씀이 있었고, 이후 게임을 통한 대원들의 단결과 친목을 다지고 자정을 넘어서 김성관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였다.

이튿날 오전 김경빈 집사가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강의를 하였다. 이후 제2가나안 농군학교 부설 복민교육원의 홍명희 교수의 '성령과 기질'이라는 강의가 진행됐다. 다혈, 담즙, 우울, 점액의 4대 기질과 12가지 개인성격이 소개되었고, 대원들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12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의했다.

각 집단마다 성격별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사례와 지향해야 할 점을 배웠다.

3월 2일(주일), 수련회에 대한 설문조사 후 강진식 집사 댁에서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는 대원 194명과 가족 11명, 총 205명이 참석하였고 대부분(86%)의 의견이 내년도 금년같이 개최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었다.

한 방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서 잠자리가 불편하였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연합수련회로 찬양대 모두 하나라는

인식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찬양대원으로서 예배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 김학원 기자(음악위원회 연합총무)

▷중등부 겨울수련회

의미 깊은 '성막체험수련회'

중등부는 2월 26일~28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새문안교회 수련장에서 90명의 학생들과 25명의 교사, 부모들이 참여하여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주제는 '말씀, 기도, 찬양, 교제'였다.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성막체험 시간으로 학생들이 바깥 뜰, 안뜰, 성소, 지성소 순으로 입성하였으며, 지성소에 도착한 학생 개개인에게 기도로 축복하였고 축하파티로 마쳤다. 성막체험이 진행되는 다섯 시간 동안, 권사, 학부모, 교사들은 중보

기도를 하였으며, 학생들의 눈물의 회개가 이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장기차량 시간에는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과 삼성프로 농구단의 푸짐한 선물지원으로 한층 흥겨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수련회를 마치고 출소하는 학생들의 얼굴이 처음 입소할 당시보다 담대해 보였고 성숙된 학생들의 표정에서 밝은 미래를 보는 듯 뿌듯한 한마디였다"고 평하였다. 다가올 여름수련회를 기대해본다.

/ 지호선 기자(중등부)

성지순례시리즈 1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

3년 전 여름, 이스라엘 한 해변에서 꿈을 꾸었다. 시내산과 광야, 사해와 여리고, 갈릴리와 가버나움, 므깃도와 갈멜산 등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전날 밤이었다. 짐을 호텔에 푼 다음 밤바다를 보러나간 나는 백사장 고운 모래에 조용히 몸을 누였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지중해의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멀리 작

게 떠 있는 배에서 불빛이 스며 나왔다. 그 불빛이 정답게 느껴져 몸을 일으켜 앉아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바다를 지나면 어디로 갈까...?' 나는 사도 바울의 꿈을 꾸고 있었다.

작년 여름, 서부 유럽을 돌면서 느꼈던 갈증이 이번 1월에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이어졌다. 3주간 여행을 하는 동안 작은 지식들과 목상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3

교회용어정리시리즈 1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과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만일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의당 다음과 같이 고쳐서 말해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으로서 2인칭이다. 우리 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는 없고, 극존대어로 쓰이는 경우는 3인칭일 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2인칭에 해당되므로 '당신'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 용어 연구위원회 제공자료)

/ 함줄함줄 편집부

▷레위파티 이야기

평소에 종교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그들도 저의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제겐 20년 가까이 모이는 중고등, 대학을 나온 동창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8년 전부터 제가 경영하던 회사가 잘못되고나서는 그 모임에 발걸을 끊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동기들 중 제일 잘 나가던 제가 꼬리가 뒀을 인정하기 싫음과 또한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 그들 앞에 뿔뿔이 나서마하는 오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의 안간힘 끝에 주님 앞에 무릎꿇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저를 죽이고나니 그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 모임의 날짜가 바로 3월 9일(주일)인데 모두들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친구들은 오래히 일요일 산행이나 야유회를 다녀와 식사를 했기에 저는 교회가 끝나고나서 식사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은 질문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어

떻게 살았냐? 애들은? 와이프는? 등등부터 우리는 다 늙었는데 왜 너만 흰머리도 없고 하나도 안늙어 보이니까... 한 마디로 쫄딱 망해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네가 어떻게 가족도 잘 지키고 애들도 잘되고 얼굴도 그렇게 천태평처럼 보일 수가 있느냐는 투로 제겐 들렸습니다.

제가 달리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뭐 있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대꾸중에는 '주님'이 때로는 주어,

때로는 목적어가 되는 대답을 할 수 밖에요.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에 다시 찾은 주님께서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셨고, 또 지금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채로 너희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셨노라고... 그건 여기 있는 내가 그 증인이요, 증거아니냐고...'

평소에 종교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그들도 저의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라면 난 여기 죽어도 못 나왔다."

그 날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레위파티를 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 김용남 성도

▷안수집사회 첫모임

교회의 '허리' 역할

봉사의 첫단추는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안수집사회(회장 하승락)는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제1집회실에서 부부동반 새해 첫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에 담임목사는 설교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여건을 이어가자"는 희망차고 가슴벅차 오르는 비전에 대한 말씀과 함께 봉사와 헌신의 가치있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2부는 정월의 덕담과 그 동안 쌓였던 정담을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했고, 3부는 웃놀이를 통하여 아주 흥겨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1등상은 몇 번 탈락 위기를 넘긴 손달진 회원이 30평형 공기청정기를 차지했으며, 2등에는 김동일 회원으로 발안마기를, 3등은 유은숙 회원으로 홍삼을 수상했다.

현재 안수집사회는 1996년에 시작

하여 재적 총 58명이며, 이 중 4명이 이민 또는 개인사정으로 참여치 못하여 현재 54명이다.

안수집사로 피택되어 안수받은 이는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고,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회원 경조사, 선교 및 필요한 부분에 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는 담임목사 청빙을 비롯한 교회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안수집사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회원이 참여하는 친교와 경건생활 프로그램 및 교회의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허리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봉사의 첫단추는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가는데 앞장서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집사 회장의 2003년의 다짐이다. / 이종석 기자(안수집사회)

▷권사회 월례회

세족식? 발마사지!

3월 18일(화) 제2집회실에서 권사회가 3월 월례회로 모였다. 이 날 김성관 목사의 예배인도 후에 이어 김양자 권사의 지도로 발마사지(정맥마사지) 실습이 있었는데 이 실습을 통해 발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으

며, 또한 유월절 전 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이동순 기자(권사회)

▷제1남선교회 임시총회

'은빛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제1남선교회는 지난 2월 9일 제3집회실에서 2003년도 임시총회를 가졌다.

2003년도 회장으로 임명된 엄주청 안수집사의 인사와 충무 신정웅 집사의 사회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의 사역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2부 순서로는 문동학 담임목사의 특강으로 채워졌다. 담임목사는 제1남선교회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주된 특강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인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버 합창단 운영', '소그룹별 운동

집단 모임', '실버대학 개설', '실버수련장' 등과 같은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소속감이 줄어드는 60대 회원이 많은 제1남선교회는 자칫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되어 노인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점을 역설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팎의 균형잡히고 점진적인 노인사업에 힘을 쓸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1974년경 학생 신분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대학 설립 멤버이기도 했으며, 당시에 노인들에 대한 연구에 전력을 쏟으신 담임목사의 이론과 체험에 관한 말씀은 향후 남선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전수경 기자(편집부)

'호렙산악등반대' 발족



얼어 붙었던 땅에 새싹이 파릇하게 소생하는 봄의 문턱인 3월 15일!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모일지 불안한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집합지인 청계산 입구(옛골)에 오후 1시경 도착했다. 이윽고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한 인원이 이상훈 목사와 부부 세 쌍을 포함해서 18명, 드디어 정상 이수봉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토요일 오후, 그 곳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었고 날씨도 아주 좋았다. 휴식 때 약수터에서 마시는 물맛은 마치 꿀물과도 같았다. 올라갈수록 길은 눈이 녹아 질었지만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가파른 길을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작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하산 중 넓은 장소를 찾아 그 곳에서 산상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의 예배도 좋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 가까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는다.

서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 나의 길'이란 제목의 이상훈 목사의 말씀을 듣고 즉석에서 호렙산악회란 이름도 정하여 회장에는 임현표 안수집사를 선임했다.

호렙산악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많은 교우들이 동참해 주리라 믿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우간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호렙산악회의 모임은 매달 세 번째 토요일 오후 1시 반이며, 동참하길 원하는 분은 호렙산악회 총무 조선연 집사(017-747-1233)에게 신청하면 된다. / 전수경 기자(편집부)

▷드라마부

3년이란 시간을 돌아보며

드라마부는 2001년 창단되어 현재 13명의 아마추어 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작품 선정, 무대장치, 조명, 의상 등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1년 '어느 버스기사의 이야기'로 주님의교회와 강남시립병원, 구리토평지구에 있는 은혜로교회 창립예배 등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고, 2002년에는 주님의교회 중강당 개관식날 '악인녀와 악인남의 삶과 죽음'이란 성극을 준비하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2003년 1월에 신천에 있는 광명교회와 2월 9일에 강

원도 주문진장로교회에서 각각 은혜로운 선교공연을 가졌다.

부장 이상경 권사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며 주님의교회 드라마부도 더욱 활동적인 부서로서 주님의 향기를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전염시킬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부장 이상경 권사(011-243-9202)에게 연락하면 된다.

/ 정해춘 기자(편집부)

